

현대건축디자인에서 개념요소로서 프로그래밍의 재해석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end in Reinterpretation of Architectonic Programming as a Schematic Factor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김능현* / Kim, Neung-Hyun

Abstract

It can be characterized that contemporary architects intend to establish architectonics which can make it possible to reinterpret the attribute of movement in space and its programming differed from the traditional perception in moving in and out any space through disjoining and reorganizing human behavior and event. This intends reflect new paradigm for subjugating the compelled funct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This Study review those intends focused on programming as a pre-design schema.

In those intends, it connotes the effort of establishing more systemic and logical approach through deconstruction and disprogramming the existing form ,space, elements and human on the basis of his own schematic conception as substitution of function in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개념요소, 프로그래밍, 코드화, 기준, 텍스트화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전반에 걸쳐 건축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혹은 건축 내, 외적 파라다임의 변화에 대한 실험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디자인은 그리노프(A. Greenough)가 주장한 이래 설리반(Louis Sullivan)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능주의 건축명제는 건축이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주체인 인간과 인간이 개입되어야 할 제반상황을 형태와 기능으로 이분하여 기능을 창조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조차도 거기에 종속시키며 기능 혹은 형태를 통해 실체가 나타나는 공간에서 드러날 상황의 다양성을 축소, 혹은 추상화시켰다.

반면, 그 같은 근대디자인으로부터의 이탈을 주장해 온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일각에선 'form follows fiasco'라는 대체명제로 건축의 목표를 "도상의 연상작용"을 통한 다양한 지각적 상황의 구상화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형태와 기능이라는 대립자속에서 주체로서의 인간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지 못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의 건축가와 건축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이 같은 명제들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형태와 그것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실체, 그에 내재

된 기능, 기능과의 작용에 있어 주체인 인간 모두가 개념화의 대상으로서 프로그래밍된다는 인식하에 근대건축의 단일성과 필연성, 동일성을 지양하고 현실의 복잡속에 내재한 연속과 우연, 차이의 변별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과 형태로 드러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제 특징들중 통합적 개념화과정으로 새로이 정의되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선 설계 개념요소(pre-design prerequisite schema)로서 인식하고 그 경향들에 관류하고 이는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제의 실현과정속에서 형태, 기능, 공간의 정합적 결정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개념요소와는 다른 의미)을 이분화되었던 건축의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건축의 성립해야 할 전제로서 도시, 건축, 내부공간의 상황과 그 상황의 주체로서 인간의 공간적 체험화 과정의 비정합성에 주목하고 설계의 전과정 나아가서는 벽, 바닥, 지붕, 구조에 의한 구축의 방법조차도 통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현대건축은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현대건축은 건축술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혼재의 과정을 거치며 80년대 후반부터 이 같은 통합 지향의 파라다임이 두드러지게 제시되고 실현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시기의 건축가와 건축작품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 시기의 경향들이 개

* 정희원, 경주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전임강사

념화요소(schemata)의 비정합성, 불확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래밍이 통합적 선-설계개념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초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를 연구하는데 있어 사례들의 지향점과 특징들에 비추어 표현양상의 수평적 비교나 분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설계 개념화과정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2. 현대건축에서 건축적 프로그램(architectonic programming)의 재해석 배경

2.1. 인간-공간-요소의 관계 개념으로서 프로그래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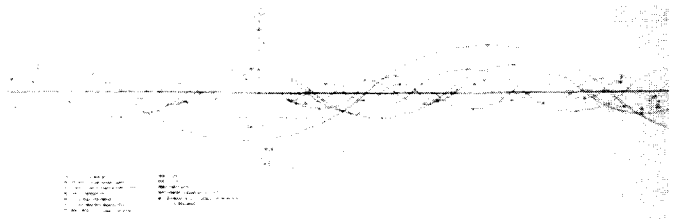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대개 완성될 디자인의 실용성 때문에 건축주, 단체, 관습에 따라 결정되어 왔고 그러한 의미에서 기능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모더니즘 이래 기능과 그것의 의미, 형태적 표현에 대해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연구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형의 합성에 관한 연구」(1963)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형태와 공간의 발전은 이러한 기능에 대해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면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와 공간 디자인의 발전은 이 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었다.¹⁾

이러한 기능성에 입각한 입장은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대 건축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사건(behavior), 건축적 공간, 운동으로 대별되는 건축적 프로그램과 건축 공간속에 있는 움직임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속에서의 움직임(behavior)과 사건을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전통적인 지각체계와 움직임의 관습에서 벗어난 건축(architectonics)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공통의 목적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공통점은 강요된 기능을 우선하는 근대건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은 대개 특정 용도나 단일 기능, 또는 유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을 재해석된 프로그래밍과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재편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① 일련의 사건이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을 「운동」으로 설정하고 ② 「공간」은 운동에 의해 파괴되기 이전에 논리의 자율성을 갖추어 공간의 정연함, 규범성이 파괴된 이후에도 그 자율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③ 순수하고 정연한 공간속에서 사건 발생과 동시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운동을 통해 ④ 새로운 지각과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²⁾

역사적으로 러시아구성주의 시대의 도시구성을 위한 운동의 구성과 조합개념을 보여주는 개념도가 이 현대건축의 구성의 의도에 있어 준거가 되고 있다 <그림 1>. 그 다음 차원으로, 그러한 가능성

을 함축하고 있는 공간속의 제 구성요소들도 ① 서로의 영역을 간섭하지 않고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고유의 논리를 고수하거나 ② 반대로 건축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상호 관련성을 맺도록 서로에 의지하여 구성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들은 생활양식이 건축의 고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조정될 수 없으며 그 같은 선입견적이며 결정론적인 프로그램은 부단히 변질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현대건축가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림 1> 러시아 구성주의에서는 공간 프로그램 연속적인 기능군을 설정하고자 했던 개념으로 추미의 건축과 리베스킨드등의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

2.2. 전통적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 근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80년대 중반이후 건축가들은 모더니즘 건축이 규정해 왔던 프로그램의 정의, 즉, 공간과 그 용도, 형태와 프로그램, 대상과 사건 간의 고착된 관계, 즉, 건축에서 공간과 그 용도는 일치해야 하며 다양한 건물 유형에 대하여 그 각각에 적합한 공간과 용도를 규정짓는 프로그램이 있고 건축이 표현되어 지는 방식, 읽혀지는 방식도 그에 따라야 한다, 는 전통적인 입장이 건축적 상황에서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건축어휘를 한정지움으로써 그 차이를 은폐하고 고착화시켰다는 인식하에 프로그래밍의 과정 자체가 통합적 디자인 개념요소로서 재인식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근대건축의 전통적인 건축구성 방법에 대한 부정을 통해 시간의 질서와 건축경험의 질서를 포함하는 새로운 구성방식의 방편으로 설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이들이 생각한 것은 대립항들간의 상호관련성(reciprocity) 즉 공간과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는 독립적이면서 서로의 존립에 완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의 모색이다.

즉, 환경 - 건축공간내에서 인간의 행위, 즉, 운동은 운동 그 자체의 논리로서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시켜 이루어질 때 관찰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공간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³⁾

나아가서는, 그 외연적 연관관계를 더욱 복잡한 상황에서 충돌시켜 공간의 용도를 결정지어왔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공간의 쓰임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도록 함으로서 건축이 단순히 좋은 의식이나 이야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현대건축가들은 건축적 이데올로기(모더니즘과 기능주

1) Christopher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Univ. Press, London, 1963, p.16

2) 高山 聖, 建築の 記號性, SD 8703, SD출판, 동경, 1987, p.187

3)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Cambridge, 1994, pp.38-39

의, 형태주의와 기능주의 등등)를 거부하거나 최소한 무관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일반적인 문제, 건축 미학, 건물과 그 기능의 관계, 거주の本질, 또는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주(dwelling)의 본질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근대건축 본래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⁵⁾

3. 건축언어 프로그래밍의 개념화 방식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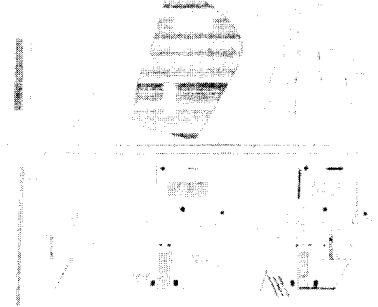
3.1. 해체와 재구축 ; 텍스트의 매개

현대건축은 대규모의 복합 건축이 “구성(Composition), 위계(Hierarchy), 질서(Order)”라는 전통적 규칙을 참고하지 않고도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형태와 기능, 구조와 경제성 또는(물론 건축적인)형태와 프로그램”사이의 대립항을 설정하고, 이 같은 고전적 대립항과 시스템의 고착적 배치를 의도적으로 역전시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연속성과 중첩의 개념, 조합 permutation과 대체 substitution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츠미나 렘 쿨하스는 건축에서의 ‘해체’ 작업을 기존의 정합적 프로그램 그 자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을 건축 작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기 위해 건축 그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속의 인간을 묘사하는 영화, 문학, 비평, 철학, 심리 분석등에서 도출된 개념을 이용하여 근대건축 이후 스테레오타입화된 행위와 사용의 관습을 깨뜨리고자 시도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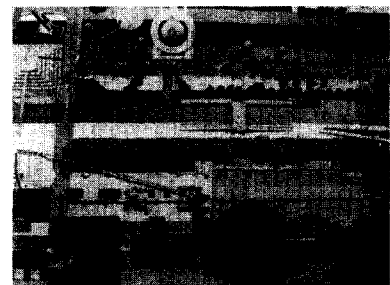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 모더니즘의 ‘단일적 체계(Autonomy)’를 전환시키는 ‘상황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건물과 건축이론, 건축이란 장르 사이의 역사적 간극을 해석하고 매우는데 밑바탕을 제공하려 하였다. 츠미의 해체방식은 그 포괄적 범주로서 크로스프로그래밍 CROSSPROGRAMMING, 트랜스프로그래밍 TRANSPROGRAMMING, 디스프로그래밍 DISPROGRAMMING 전략을 통하여 건축설계에 접근하고 있다.⁷⁾ 개념화로서의 이 방식은 ① 완전한 구축물을 디자인하기 위한 영감을 토대로 ② 여백속에서 이미 거기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충하여 신. 구의 갭을 메우고 텍스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있는 그대로 배치하였다. ③ 여타의 도시,여타의 공원등과

같은 곳에서 도출된 다른 커를 추가함과 동시에 그것에 선행하는 역사적 커를 진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해체한다. ④ 대지, 프로그램상의 제약조건, 실제 도시나 현실적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추상적 시스템(매개체)로 활용하여 도시의 욕구와 현재의 한계 모두와 연관된 ‘통합적 구조’를 이루기 위해 중첩시키되 통상적인 구성(COMPOSITION)과 보완(COMPLEMENT)과정이 배제된 ‘조합’과 ‘대체(SUBSTITUTION)’의 강한 개념적 틀을 함유하고 있다. 이 개념적 틀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덧쓰기(Palimpsest)’ 기법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형상적(FIGURATIVE)’ 또는 ‘재현적(REPRESENTATIVE)’ 요소들은 라 빌레트 속에서 구체화되어 프로그래밍 자체 뿐 만 아니라 기술적, 정치적 요소들과도 양립되면서 결정된 용도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유기적 구조, 중심, 위계(나아가선, 그리드까지를 포함하여)를 갖지 않는 구조, 프로그램과 통상적인 최종 건물들간의 일상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가정을 부정하고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대체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⁸⁾ 그 예로 라빌레트 공원(파리,1983)의, 대지 계획의 구상<사진 1><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매개체로서 점은 반드시 있어야 할 프로그램과 건축간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라빌레트 공원 구상, 베나드 츠미, 렘 쿨하스, 파리,1982
 도시이용 프로그램에서 기존과 신규시설을 배치에 있어 그것의 발전과 각 기능의 중첩을 통한 함축적 scheme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리드가 필요치 않은 익명성을 통해 그 본질상 위계를 깨뜨리고 불완전과 무한한 확장, 반 자연적인 것, 무한한 기능이 함축되어 있는 반 기능적인 것(antifunctional), 현실적인 디자인이 고려



<사진 1> 라빌레트 공원 계획 구상 모형, 베나드 츠미, 파리, 1984

4) Jorge Glusberg ed, Deconstruction A Student Guide, Academy Edition, London, 1991, p.11

5) J. Glusberg, op.cit., p.42

6) B. Tschumi, Manhattan Transcripts,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79, p.47

7) Bernard Tschumi, op.cit. 1994, p.205.

크로스 프로그래밍-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주어진 공간구성을 이용하는 것. 유형학적 재배치에 가까운 경우; 트랜스 프로그래밍- 각각의 공간구성이 그 특이성과 독자성으로 인해 병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프로그래밍이 결합되는 경우를 말한다; 디스프로그래밍- 두 개의 프로그래밍이 결합되어 프로그램 A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구성은 프로그램 B와 B의 가능한 구성을 배제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B는 프로그램 A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의 모순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며 B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구성은 A에 다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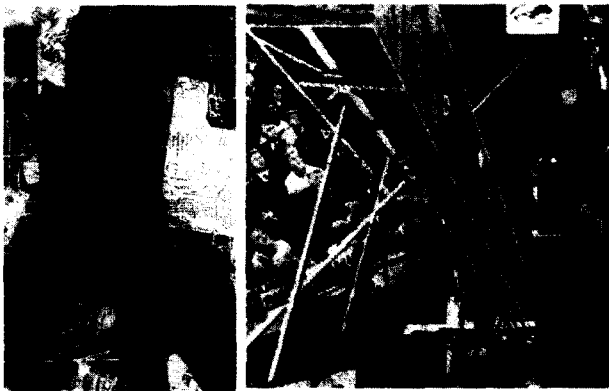
8) 김능현, 이일형 편역, 해체주의 건축, 전일, 서울, 1993, p.98

된 추상적인 것, 지역적인 컨텍스트가 함축된 반 컨텍스트적인 것, 대지의 경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한한 확장성, 비결정성, 비기원성을 추구함으로써 각각은 역설적이지만 독자적인 체계를 나타내며 그것은 하나의 개념적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디자인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서로 상이한 중첩효과를 표출하면서 그 차이점들을 유지하되 어떤 특권적인 시스템의 선행 (ascendency)이 배제된 채 구성되는 요소들 각각은 “주체”로서의 건축가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중첩이 되면서 주체-건축가는 소멸하게 된다.

둘째, 본질적으로 복합적이고, 연계성이 약한(dissociate) 상반된 요소들간의 異種(heterogeneity)의 원리를 통해 구조물의 ‘계산된 불연속성’이 구사되게 한다. 이러한 식의 디자인에는 관습적인 구성 대신 몽타주화 하여<사진 2> 총체적 양상이 반복과 역전(inversion), 대체, 삽입 등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소가 연속적인 운동속에서 인식되도록 한다.



<사진 2> 베를린 재개발 구상, 리베스킨드, 1989
베를린의 도시적 상황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 몽타주 기법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차원의 프로그램을 추출하고자 한 구상

세째, 여러가지 구조를 겹쳐 놓음으로써 “본질을 추구하되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론적인 총체성(totality)”과는 정반대의 것을 만들어 내게 된다.

네째, 나름대로 내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들을 추가시킴으로써 결코 일관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고 역설의 여지를 두고 있다.

다섯째, 동질성(homogeneity)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여러가지 구조를 중첩시킴으로써 프로그램과 건축 그리고 그것의 의미간에 ‘선입견적 일상성(preestablished causality)’ 개념으로부터 ‘의미의 확산(disperse of meaning)’을 촉진시키려고 한다.

여섯째, 주관적이고, 형식적이며 기능적인 성격을 띤 ‘기존’의 건축적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일곱째, ‘어떤 기능이나 용도에 봉사하고 봉사되는 ‘쓰임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근본주의적인 근대건축 전통의 의미(signified)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건물이 폴리로서 기능하고 그 폴리 또한 그 자체로 고정되거나 구체적인 용도를 갖지 않는 “프로그램상의 불안정성”을 제시하고자 한다.⁹⁾

여덟째, 도시 생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건축과 프로그램’ 형태와 기능의 대립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통해 디자인이 일방향적인 ‘맥락주의’와 ‘연속주의(continualist)’적 접근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어하고 동시에 건축가가 개입함으로써 항상 ‘유형학’이 건물과 내부공간, 도시공간, 공원 디자인의 선례와 연관된다는 어떤 의식도 부정한다.

3.2. 의미의 도출과 확산

(1) 건축적 의미의 해체

현대건축의 다원적 디자인의 철학과 실천은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 이상을 배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더니즘적 공간과 형태의 변증관계속에서 표출되는 의미는 그 용어 자체가 ‘영속적인 것(immanent)’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피터 아이젠만은 배치계획이든 입방체의 조각이든 기하학적인 규칙의 조각을 통해 전혀 의미론적으로 참조를 되지 않은 순수한 건축적 구문syntax을 갖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¹⁰⁾ 디자인 전략 면에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적 배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건축이 갖고 있지 못한 의미에 대한 공격적 입장으로 “잘 정의된 의미체(well-defined signified)”, 보장(guarantee), 확실함 (authenticity)라는 모더니즘적 이상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의미는 모더니즘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생산물이고 다른 사람이 저자가 만들어 낸 것을 다양하게 읽게 만든 결과로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¹¹⁾

(2) 내재적 의미의 사회화

현대건축의 개념에 나타나는 심리분석적인 측면이나 사회학적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건축의 의미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서 도출되고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건축 디자인 전략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소외를 거부하고 인본주의적 사고의 역사적 도피처를 찾기 보다는 ‘형태의 끊임없는 변증관계’를 통해서 순수한 언어의 유희를 견지하고 중첩과 변형된 요소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형태의 구성방식을 거부하여 형태의 조합과 수렴이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이미지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9) 김능현 외, 상계서, p.125

10) Andrew Benjamin et al, RE: WORKING EISENMAN, Academy Editions, London, 1993, p.24.

11) Magali Sarfatti Larson, Behind the Postmodern Faca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 pp.150-152

12) B. Tschumi, op.cit, 1994, p.134

서 그 특징들이 백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4. 개념화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의 방식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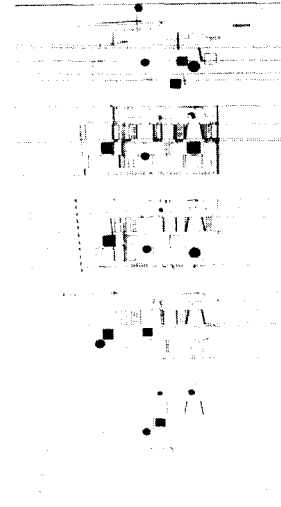
4.1. 개념조작

(1) 공간의 코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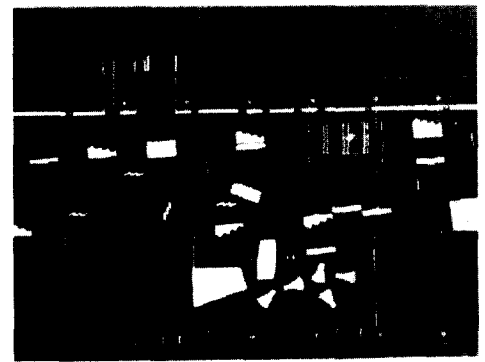
이러한 시도들은 지금까지의 건축 현상이 소재의 쓰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과 이미 성립된 유형이나 형태를 반복 사용하는 '유형학적 접근', 건축외의 기존 대상에서 시각적 또는 다른 유추를 이끌어 내는 '유추적 접근', 그리고 기하학적 신택스에 의존하는 '구문론적 접근방식'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단계별 이미지를 획득하는 특징을 갖는다.¹⁴⁾

예를 들면, 츠미의 일본 동경국립극장 계획안 (1987)은 프로그램을 해체하는데 음악의 '기호=음계'를 코드화하는 수법을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극장 건물이 수용해야 할 기존의 다양한 부분들 간의 전통적 상호관계를 해체하였다. 그는 "아트리움, 무대, 포이어, 초대형 중앙계단등간의 예술적인 분절은 더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고착된 역사적인 작업과는 반대되는 매개적인 문화적 의미를 평행 병치시킴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8개의 음계를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음악 악보를 설정하여 거기에 오디토리움, 무대등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을 걸쳐 놓았다. 이 구상도는 극장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면에 파사드로 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떡'을 형성하는 평행선과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 '해체된 요소들은 개념, narrative, 또는 프로그램상의 관심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와 같은 건물에서 흔히 추구되는 기념비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림 3> 한편 풍피두 센터 전시실 계획(파리, 1990) <그림 4>의 경우는 기존 공간에서 장래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 건물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전이 띠(transfer strips, slab, wave, 테크 간의 독특한 사이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간은 건축적으로 그 자체가 구축될 수 있는 띠로서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면서 시각적 상승감의 자극과 분리성을 포출하는 반면 그 내부의 선형 「네거티브 공간」은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애매한 성격을 갖도록 하여 전통적 건축개념에서 벗어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고 과거의 전례나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반복적인 유형학'들을 배제함으로써 건축 구성(composition)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있다.



<그림 3> 동경국립극장계획안, 버나드 츠미, 1984
음계를 텍스트 삼아 점,선,면의 개념요소로 각 기능단위의 배열하고 운동, 면적, 기능, 개념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평면구상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그림 4> 풍피두 센터 전시실 계획, 버나드 츠미, 파리, 1987
공간내에서 영역별 요소의 배치와 사람의 운동과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2) 기준(DATUM)의 재해석과 덧쓰기

아이젠만은 "르네상스 이래 약 500년간 인체의 프로포션은 건축의 '기준DATUM'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 과학, 철학, 심리분석등의 발전은 더 이상 그러한 이상을 수용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의 척도,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추상화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으나 건축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주장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존재와 기원, 미학적 오브제를 건축이 갖는 3대 '상층 요소'- 대지, 프로그램 그리고 재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대학 생물학 연구소에서는 스케일링 기법을 '서로 다른 3개의 파괴적인 개념' 현재 상황에 함축되어 있는 형이상학성과 배치되는 '불연속성', 전례에 배치되는 '회귀성', 미학적 오브제의 재현과 배치되는 '자기 유사성'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사진 3>

13)保野嘉 郎, 진경돈 역, 경계의 형태, 집문사, 서울, 1991, p.58

14)Jorge Glusberg ed., op.cit. 1991

15)Jeffrey Kipnis and Thomas Leeser, CHORA L WORKS, Monacelli Press, New York, 1996, pp.138-139



<사진 3> 프랑크푸르트대학 생물학 연구소 계획, 피터 아이젠만, 1987
이 시설에서 행해질 기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설정 하고 기능과 형태의 결합 방식은 이 건물에서 행해지는 연구대상인 DNA유전자의 결합방식을 텍스트화 하였다.

통상, 대지는 이해할 수 있고 총체적인 컨텍스트로서 주어진 것이고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 아이젠만은 그러한 것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기억과 잠재력(potential)의 흔적(trace)을 담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덧쓰기(Palimpsest)”를 이용하면서 여기에 자유롭게 파괴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것을 영역에 따라 나눔(DIVISION),통합(UNION), 변증(DIALECTIC)간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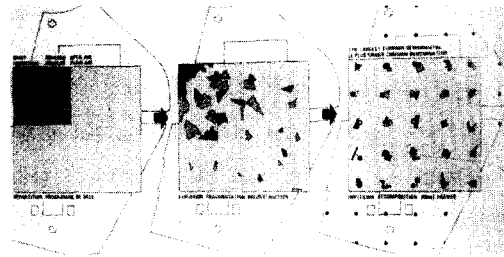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정을 지원하는 아이젠만의 그리드 개념은 흥미가 라빌레트 공원에 나타난 방향성orientation 개념으로서 그리드 개념과는 서로 다른 스케일상에서 유추되는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스케일의 조작

피터 아이젠만은 스케일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서의 인간의 신체에 대한 강박관념을 지양하고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상이한 스케일로 같은 “유추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물자체의 가치, 특정 스케일에서 특정 오브제가 갖고 있던 특권을 상실케 하려는 디자인 전략을 갖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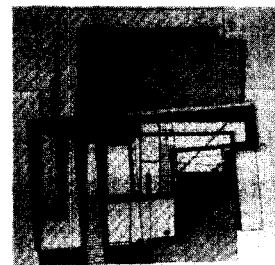
아이젠만의 건축에서는 서로 다른 스케일의 두개의 직선들이 다양한 각으로 만나고 그 외곽선은 두가지 스케일로 프로젝트내에서 사용되는 곡선과 결합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 조소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는 이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철학적 개념으로써 『흔적』, 『차연』,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Plato Timaus와 결부지어질 수 있다.¹⁷⁾ 이것은 지금까지 서양의 모든 체계를 지배해 온 이성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우주를 풀지우는데 있어 이성을 영혼안에서 형성됨으로서만이 뛰어나고 완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¹⁸⁾ 이렇게 되었을때 서로 다른 불명확한 형태가 밝혀지고 설명됨으로써 본질이 수용되고 (Coral Work) 그렇게 함으

로 각각의 오브제가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그것이 감각될 수 있도록 총체적 상황 Choral 속에서 오브제들이 취하는 물리적 요소들은 공간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개념인 choral은 어떠한 파괴도 허용치 않으며 이성적으로 사고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도록 모든 사물에 대한 상황을 함축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젠만은 “수용체container”와 “수용내용contained”간의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 choral의 개념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¹⁹⁾<사진 4>



<사진 4> 라빌레트 공원의 프로그래밍 분석
아이젠만의 choral 개념을 반영한 초기 개념도

또 다른 예로, 수법면에서 아이젠만의 그리드 변형은 라디올라 주택<사진 5>의 경우에서 엿보이는데 수법면에서는 주택 10호(1979)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도 19세기적인 이성의 그리드에서 나타나는 정태적 패턴들을 무력하게 하는 급진적인 패턴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안에 전통적인 이성과 근대적 사상에도 비합리성과 비논리성이 내포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과거의 장소개념을 깨뜨려 figure/ground, figure/object라는 대립항들간의 전통적인 구분개념을 단편화시킴으로써, 질서의 개념이 재편되도록 하였다. 즉, 이 주택은 흔적과 비합리성이 오브제 / 장소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성성분으로써 논리와 혼돈을 공존시켜 figure /frame 의 개념을 깨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의 “L 형”은 인간과 자연간에 설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해체를 통한 “합리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사진 5> 라디올라 주택, 단면도, 피터 아이젠만, 1994

16)Arie Graafland, Architectural Bodies, 010 Publisher, Rotterdam, 1996, p.93
17)Jeffrey Kipnis 외, ibid, p.154
18)J. Glusberg, op.cit., p.151

19)Jeffrey Kipnis 외, op.cit., 1994, p.143

4.2. 공간-형태-볼륨의 통합적 프로그래밍

(1) 볼륨의 해체

이상과 같은 해체적 성향은 d'의 의미:demolition, dismantling, decay, de-composition 또는 disintegration를 지향하는 측면외에도 distraption, dislocation, deviation, distortion 를 지향하는 건축을 추구함으로써 구상적 형상을 파괴시키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태의 안정, 일관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후자의 경향은 마크위글리의 주장대로라면, 건축형태는 곧 구조라는 주장에 집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다음 2가지 분류로 대별할 수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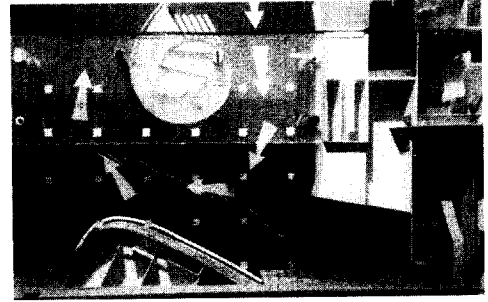
① 단순,기하학적 구조형태의 추구

내력벽, 목구조등으로 구축하여 형태자체의 왜곡이 발생한다해도 구조로서 인식된다. 예 : 게리의 윈튼 게스트 하우스- 단순 기하학을 뒤돌고 쌓아 올리고 단편화시키며, 비틀어 놓았지만 구조적인 표현을 감추고 있다.²¹⁾ 쿠프 힘멜블라우 Coop Himmelblau - 의 건축의 경우는 편의성이 우연히 실현된 것을 표현하는 구조체를 표현하고 있으며.(독수리, 곤충, 콩코드(concord).bar,고래의 은유)²²⁾, 자하 하디드의 경우는 재료를 대립을 통한 탈중력적 표현을 유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공통점은 그 형태의 조합이 이지적이라기 보다는 메카니즘적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아이젠만이나 추미식의 디자인 전략과는 달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수공적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추미나 아이젠만이 각각 interlocking system 과 아이젠만: 복잡한 비기하학적 기하학 체계를 사용하는 반면 게리는 실용적 측면과 ,대지상의 빛과 향에 대한 탐구, view를 틀지우는 경향등에 바탕을 둔 순수 건축적 사고의 결과물로서의 건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직관적 해체

OMA와 렘쿨하스의 체크포인트 찰리 주거- 동,서 베를린 검문소였던 건물주변에서 사람들의 행동영역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율체로서의 프로그래밍을 나타내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관광장소로 ,옛 건물이 수퍼마켓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의도된 것이다. 또, 헤이그의 국립 무용학교(1984-87)에서는 홀뜨러뜨린 기하학적 블록으로 둘러싸인 뒤집히고 끝이 잘록한 황금색 원추들의 조합과 수평창과 같은 모더니즘의 요소에 포스트모더니즘 수법이 동시에 구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표출되는 조화스럽지 못한 대가방향의 의장, 경사지붕, 커튼월이 건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사진 6>



<사진 6> 찰리 검문소, 렘 쿨하스, 베를린, 1992

그 밖에도 헤이그 시청사 및 도서관 계획(1986)에서의 수직처리, 커튼 월, 슬라브의 연속, 입면과 맞지 않는 듯한 “날개”를 상징하는 요소나 프랑크 푸르트 Bio - Centrum(1988), 네덜란드 건축 및 건설대학 (1988),국립 프랑스 도서관, parc 시트로앵, 도시설계 등에서는 단순한 매스의 병렬과 매스의 병렬과 거기에 입면요소, 상징 요소들이 서로 무관한 듯 배치되면서 쾌락과 다양성, 움직임과 형태의 복잡성을 통해 .각기 다른 공간들은 서로들 상충하면서 인접매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잠재력을 표출하도록 의도되고 있다.²³⁾

(2) 내재된 통사구조의 해체

안드레 블로 Andre Bloc의 “Sculpture Habitable”는 전형적인 해체적 건축 개념에서 그 시발점을 찾고 있는데 매스의 본질이 고체성에 있지만, 시각적인 질(Sensible plato)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에 속한다. 따라서, 매스의 처리는 3차원 형태의 시각적, 외형적 구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assing은 실용주의, 유형학,유추, 통사적 특성을 모두 가지며 이것을 해체시킨 형태가 될 때 게리의 주택에서와 같이 구멍뚫기(Hollowness)가 되기도 한다.

① 면의 조각

히로미 후지는 ‘면’을 해체하고 끼워넣는(Interlocking) 작업을 통해 장방형 box를 기본으로 건물의 역할과 내용이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과 결부시켜 설득력 있는 (Narrative)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형태적으로도 인지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실루엣으로 느끼게 해준다. 하디드의 경우도 몬순 레스토랑이나 그뢰니겐 파빌리언에서 처럼 빛의 조절과 관련하여 면을 처리할 때를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곡면으로 처리하여 돌(sail)과 같은 육중한 효과와 함께 융통성이 극대화된 허상(negative)으로서의 면을 나타낸다. 리베스킨드의 베를린 박물관 계획(1989)등에서 보면<사진 7> 꺾임(Zig-zag)면과 꺾인 공간과 대응시키면서 그것의 연속은 그의 기초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음악적인 음울을 띤다. 이것은 사람이 그 면을 이동할 때 느끼는 감각에 회화(몽타주 형식)적인 면을 통해 편평한 오브제와 공간을 연계시키고 3차원 오브제를 정위시켜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 때 시각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나타낸다.²⁴⁾

20)김능현 외, 상계서,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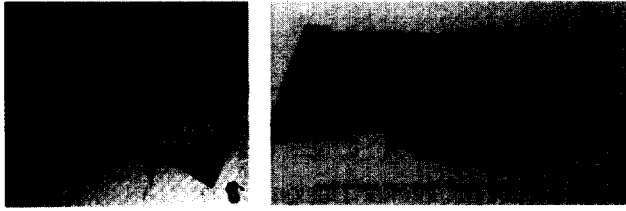
21)Germano Celant Frank Gehry building and projects, Rezzoli, New York, 1985, pp.8-9, pp.138-139.

22)Frank R. Werner, 時代精神への講義, A+U 8907, A+U출판, 동경, pp.21-22

23)Jacques Lucan., OMA-REM KOOLHAA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0, p.167

Rem Koolhaas, El Croques, El Croques, Barcelona, 1998.

24)Daniel Libeskind, Radix-matrix, Prestel, New York, 1997, pp.34-53.



<사진 7> 베를린 유태인박물관확장계획, 다니엘 리베스킨드, 1989

② 정력학적 프레임 구조의 해체

개리와 Coop Himmelblau에게서 그 전형을 볼수 있는데 힝멜블라우의 경우 메르쾨 스킨(1981), 오픈 하우스(1983), 아틀리에 바우만(1984),등에서 비정상의 각도에서 조합되는 다양한 면과 매스를 지지하는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정교한 기성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지는 기초시스템(foundation system)과 그것을 보조하는 강철구조로 된 반사 캐노피등으로 구성되는 기본스틸 시스템을 중첩시킨 프레임 체계를 상호작용 시킨 결과이다. 그외에도 하이 테크적 발전에 힘입어 Skin 구조의 해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탈중력적인 특징을 보인다.

5. 결론

어느 시대의 건축이든 건축의 전례, 사조에서 축적된 기능주의적 형태적 내용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속에서 '해체'되고 새로이 '재구축'의 프로그래밍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선, 지금까지 다루어진 현대건축의 특징이 프로그래밍의 선-개념화속에서 개념의 조작과 공간 - 형태 - 공간의 통합을 준거로 한다면 그것은 전 시대의 건축과는 달리 인간의 행태적 감각 및 그에 따른 가능한 상황에 대한 공간적, 형태적 해석의 통합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곡된 기능주의의 단일성이 제기한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현대건축의 선-개념요소로서 프로그래밍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미학적 평가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공간내의 주체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공간의 풍부함과 그에 대응하는 형태의 변화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건축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와 '재구축' 과정도 구상이나 기획, 제반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서 기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이들의 기능성이 그 프로세스에서 근대건축의 기능-형태의 이분법적 도식과는 변별된다는 점,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개념적 추론보다는 크고, 작은 현실의 가능한 상황을 공간 디자인상의 해석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의미의 역전, 선인견적 형태 정위개념의 역전등을 통해 재구축하여 새로운 내용에 맞도록 하는 체계성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능현, 이일형 편역, 해체주의 건축, 전일, 서울, 1993
2. 保坂陽一郎, 진경돈 역, 경계의 형태, 집문사, 서울, 1991
3. Alexander, Christoph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Univ.Press, London, 1963

4. Benjamin, Andrew et al, RE: WORKING EISENMAN, Academy Editions, London, 1993
5. Celant, Germano, Frank Gehry building and projects, Rezzoli, New York, 1985
6. Glusberg, Jorge ed, Deconstruction A Student Guide, Academy Editions, London, 1991
7. Graafland, Arie, Architectural Bodies, 010 Publisher, Rotterdam, 1996
8. Graafland, Arie. Peter Eisenman Recent Projects, SUN, Amsterdam, 1989
9. Hays, K. Michael, Architecture, Theory Si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8
10. Jencks, Charles, and Kropf, Karl, Theories and Manifestoes, Academy Editions, London, 1997
11. Kipnis, Jeffrey, and Leeser, Thomas, CHORA L WORKS, Monacelli Press, New York, 1996
12. Koolhaas, Rem, OMA -Rem Koolhaa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0
13. Larson, Magali Sarfatti, Behind the Postmodern Faca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 1998
14. Libeskind, Daniel, Radix-matrix, Prestel, New York, 1997
15. Lucan, Jarque, OMA-REM KOOLHAAS Princeton Achitectural Press, New Yoirk, 1990
16. Nesbitt, Kate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17. Tschumi, B, Manhattan Transcripts,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79
18. Tschumi. B, EVENT CITIES, MIT Press, Cambridge, 1994
19. Tschumi. B,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Cabridge, 1994
20. 高山 聖, 建築の 記號性, SD 8703, SD출판, 동경, 1987
21. Werner, Frank R. 時代精神への讚辭, A+U 8907, A+U出版, 東京
22. El Croque, Rem Koolhaas, El Croque, Barcelona, 1996

<접수 : 2000. 11. 10>